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광두



술에 취한 운전자가 단속하는 교통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종종 눈에 띄더니, 시위하는 젊은이들이 시위를 막는 군인들을 옆 발차기로 공격하는 영상이 눈을 자극하더니, 시위 군중들이 관공서에 불을 지르는 모습까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특정 이익집단들의 정치 시위에 정부 당국은 항상 엄격한 법의 적용을 내세우지만, 이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대로 시위를 막으려 노력했던 경찰 간부들이 고역을 치르는 경우가 있곤 했다.

대통령 이하 모든 관계부처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잡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호언장담했던 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거나 해서 무주택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은 왜 계속되고 있는가. 왜 법집사가 우습게 받아들여지고, 이익단체들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정부의 무능력이 상식화되었

을까. 법집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원, 검찰, 경찰 등 소위 준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협을 바탕으로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권위주의를 벗어 난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제자리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도, 그 시대의 뼈아픈 잘못들에 대한 지나친 반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특정 이익 단체들의 공권력 우습게 보기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권력의 대응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정치권력의 이념적 뿌리나 정권강화에 기여도에 따라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의 크기가 결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고 자평하는

서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고, 경제인들은 정부 정책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 따를 수 없어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현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 아파트 사고파는 데에 머리를 싸매느라 성실한 근로의욕을 망각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를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거리로 나오거나 관공서를 습격하려는 시위 군중들, 이러한 현상들의 중첩은 투자와 소비 부진, 노동

집단들은 공권력의 법 집행 능력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부의 무능력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력관리가 잘못되어서라고 본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아니라 각종 연고·지연, 학연, 권(력)연, 금(권)연 등에 의한 요직 안배가 성행하고, 결과적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법집사의 훼손, 공권력 무력화, 정부의 신뢰상실 등은 우리 사회를 무질

생산성 저하, 비생산적 투기행위의 성행,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대 등을 초래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어두운 결과를 나타낸다.

지난 4년 동안 세계 경제는 호황 국면에 있었고, 국제경쟁 차원에서 우리를 뒤에서 밀어내고 앞에서 내려 누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고도성장의 지속과 개혁을 통한 성장 궤도에 재진입이라는 위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회는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점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입지가 좁아지는 안타까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질서의 비용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속하는 사회의 후진화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한국 국민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국제 정치외교에서 한국은 변방의 종속 변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 2007년에도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가 기우에 그치기를 희망하면서 2006년을 보내고 싶다. <서강대 교수·다산연구소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질서의 비용

시설

정치권, 언제까지 민생 외면할 것인가

청와대가 정국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가 27일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제안안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의 정치협상회의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대외정국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국은 총체적 난맥상이다. 청와대는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정계개편과 내년 대선에 쏠려 있는 것 같다. 예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쟁 현안을 둘러싼 정치공방과 힘겨투기로 주요 민생 현안과 계류법안은 뒷전에 밀려있다.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과 전효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이재정 통일부장관 및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전교조의 연가투쟁, 집값 폭등에 따른 여파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하지만 국론을

결집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

국정 파탄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비판여론에도 오기와 독선으로 일관했고 당·청간 갈등도 깊어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구심점을 상실한 채 한미 FTA 체결, 출자총액제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당론마저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지율이 최근 한자리 숫자까지 떨어졌겠는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떠넘긴 채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정쟁만 벌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매달려 민생을 방치해선 공멸을 자초할 수 있다.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세금폭탄' 중부세 보완책 마련해야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중부세) 통지문이 26일부터 일제히 발송됐다.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5배나 늘어나고 액수도 2~3배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대상자도 2천346명에서 9천190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납세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부세 대상자가 집값 폭등에 따른 엄청난 불로소득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부세 대상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이고 이들 보유주택이 전체 대상 주택의 92.3%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집값은 서민이나 수도권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부작용과 지방주민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중부세 반대 논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한나라당도 이런 민심이 두려워 지난해 중부세를 포함한 조세정책 개선안의 당론 채택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중부세 반대 논리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주택 1채만을 가진 봉급 생활자나 장기 거주자, 정년퇴직자와 같이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단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부세 폭탄'을 떠안아야 되겠는가.

더욱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중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차치 지방주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무리한 중부세 과세가 오히려 집값이나 전세값에 전가돼 서민층에게까지 부작용을 파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는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부세의 근본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처음으로 생각하면 중부세 반대 논리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한나라당도 이런 민심이 두려워 지난해 중부세를 포함한 조세정책 개선안의 당론 채택을

NGO 칼럼

김도형



남도의 젓줄이라고 일컫는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 강 중의 하나로 전남 담양군 용문 용연리 유추봉에서 발원하여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등 지류를 합쳐 자장 3백리 호남벌을 관류하고 있으며 하구언을 통해 서해로 흐르는 총 유역면적 3,371.4km, 유로연장 136.0km(본류)로 전남 사람들의 생활과 생명적 터전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1996년 1월 이후 목포시의 상수도가 주암호에서 공급됨에 따라 농업용수에만 사용하게 돼 시민들과 민들의 관심사항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이 또한 영산강이 4-5급수로 전락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로 되어 있으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직된 내수면 어업계, 법인 등을 우선하여 면허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허가는 대개 5틀 내외에서 허가하고 있지만 30틀에서 50틀 많게는 80틀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어 심각한 개인주의적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이 삼각망에 걸린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 물고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관계로 잡았지만 그대로 다시 방류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토종물고기는 생존의 길이 더욱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어망이 영산강 생태계 파괴

영산강의 수질악화 요인으로 농업용수로 인한 관심저하를 비롯해 상류 4개댐의 농업용수 저수로 하천유지수량 절대부족, 중류에 위치한 광주시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생활하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지연, 영산강 하구둑 축조 이후 영산호에 오염물질 축적, 어망과 생활쓰레기 불법적 설치 내지 투기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영산강을 살려내는 데 개인 이기주의를 버려야만 가능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불법 어망 설치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부분이다.

영산강에 주로 설치되는 어망은 주로 삼각망으로 화살표모양으로 한 줄로 죽가르질러 오다가 삼각형 식으로 뻗어나가는 그물로 그 그물이 촘촘해 물고기는 물론 어린 치어까지 씹쓸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삼각망 허가는 수면관리자와 수면이용에 관한 협의를 걸쳐 면허하

또 이러한 페어망들이 어선에 대해 선박사고를 낼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시와 단속 수거 등에 대한 사업적 고민들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 내에 이러한 페어망이 650t에서 700t이 설치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 산술적인 수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조속한 시일 내에 페어망에 대한 제거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빠르면 빠른수록 영산강 수질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활동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이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국 3대 강과 섬진강의 경우 유급제 민간 환경감시단을 두어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영산강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의 도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살리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청소년 탈선 우려 큰 DVD방 당국 지도·감독 필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최근 예전에 상영된 영화 중 보고 싶은 게 있다며 함께 DVD방에 가자고 했다.

유난히 영화를 좋아해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 이해는 하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면 될 것을 굳이 DVD방에 가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DVD방이 사운드도 좋고 화면이 커 실감난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내서 시내 한 DVD방에 갔는데, DVD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영

화를 보고 나온 고등학생 또래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는지, 방안이 온통 담배연기로 자욱했다.

특히 DVD방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밀폐되어 있었다.

말만 보내지 않고 따라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DVD방이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을 펼쳐야 할 것 같다.

▲임정화·광주시 동구 총장모



히말라야 타르의 재발견



다큐멘타리를 보다가 우연히 우치 동물원에 있는 히말라야 타르(Himalayan tahr)를 보게 됐다. 타르스(屬)에 속하는 야생염소의 일종으로, 히말라야 타르, 히말라야 타알이라고도 불린다.

그 동안 암컷들만 두 마리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 동물원에서 수컷을 분양한다고 해 겨우 짝을 맞췄던 동물이다. 그것이 지난 봄 두마리의 새끼를 낳기도 했다.

여하튼 수의사인 나 역시 이 녀석을 그저 평범한 산양 종류로만 여겨왔던게 사실이다.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들도 특별히 알고 찾지 않는다면 히말라야 타르라고 써진 안내문만 보고 지나칠 뿐이다.

관광객들에게는 풀을 주면 가까이 다가와 받아먹어주는 사슴이 훨씬 인기 있는 동물이다.

고병원성 시,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침착하게 대처해야

전북 익산 양계장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전국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전남지역도 최근 한 달새 13개 지역 67개 농가가 이 양계장을 통해 병아리를 분양받았거나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된다.

설사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죽기 때문

하지만 다류멘타리 속에서 비취진 히말라야 타르는 결코 평범한 동물이 아니다. 1년 내내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 그 험난하고 추운 곳에서 유유히 살아가는 유일한 야생 초식동물이자 등산가들의 수호신이다.

이 동물이 높은 곳에서 나타나면 그 날은 정상에 도전해도 좋을 만큼 날씨가 맑다고 한다.

우린 작은 초식동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물론 작은 초식동물들의 모양이, 털 모양이나 뿔의 형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워낙 비슷하여 식상하기 마련인 건 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도 오랜 진화의 산물이란 걸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hlvnat@hanmail.net

에 달아나 우리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사육 능가 및 육가공업체 등은 매출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안먹어야 한다는 식은 곤란하다.

당국도 가축 비상감염을 비롯해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및 치료 약품 확보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민들도 키워는 가축 도살을 안타깝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 협조하고 당국은 이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정민·장흥군 유지면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스포츠에서는 흥경기가 유리하다. 흥경의 응원과 위세를 등에 업은 선수들의 넘치는 자신감 등이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홈앤드 어웨이 방식에 의해 승부를 결정할 경우 상위팀에게 먼저 홈에서 경기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또 원정경기 승리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전체 승점에 반영한다.

그러나 홈팀이 이기는데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변수가 더 있다. 바로 심판이다.

실제로 축구경기에서 심판들이 홈팀에 더 유리한 판정을 한다는 통제가 나와 '심판들은 홈팀 편을 든다'는 원정 팬들의 불

'로봇심판'



불고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사례도 위의 통계 속에 포함되는 것일까.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 한국과 스위스 경기에서 주심이 스위스의 오프사이드 반칙을 볼지 않은 것을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스위스인이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1일 열린 K리그 성남과 서울의 경기, 필자의 눈에

도 전반 38분 서울의 땅볼 슈팅이 카메라 각도로는 골라인을 넘어 버린 상태에서 성남의 수비수가 걸어 찬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골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장수 서울 감독은 "성남 구단주가 (프로축구)연맹 회장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다. 결국 판정시비 때문에 FIFA는 내년부터 비디오 판정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다 못하면 '인간심판'은 퇴출당하고 '로봇심판'이 그라운드를 지배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